

#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모의 태도 고찰

이근대 · 차타순\*

(뉴욕주립대학교 · \*부경대학교)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공교육비를 비롯해서 각종 명목의 사교육비까지 지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비 지출이 생계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교육비 지출과 학부모의 심리적 부담은 어떠한지, 그리고 교육비 지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고, 이러한 교육비 지출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점을 찾으려는데 목적이 있다.

현대 사회가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로 급변해 감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붕괴되고 기술집약적 첨단기술 산업으로 급선회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산업체마다 노동인력 수요자가 급격히 감소되고 고급인력의 취업경쟁은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다. 더욱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인력 육성과 개발 정책은 상급 및 고급 인력 교육의 필요성을 가일층 부추기는 유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적 경쟁력도 치열하지만 한편 국가적 생존전략도 날로 조직화 내지는 치밀하게 되어 간다. 국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은 매우 복잡하고도 다양하겠으나, 특히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고부가가치의 첨단 기술 개발이나, 또는 그 나름으로의 독창성, 차별성 및 고유성이 함유된 생산품이어야 한다.

이러한 현대 국내외의 정세의 치열한 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자녀들의 고급인력 육성에만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공교육비 지출은 의당 정상적이라 고려하겠으나, 그 밖에 자녀들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보충수업, 학원 과외, 개별지도 및 고액 과외 등 각종 사교육비에 충당되는 비용을 합치면 그 액수는 막대하다. 물론 이러한 과외공부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러한 과정을 경험했다는 보고가 있다.

최근 고액과외로 인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고위층 내지 부유층 자녀들

의 압거래 특별 고액 과외 지도가 탄로되어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확대되어 공론화되었다. 계층 불문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러한 교육비 지출이 과연 가정 경제의 여유금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빚을 지더라도 자녀교육만을 시켜야 한다는 억지 경쟁 심리에서 야기된 것인지, 또는 자녀 출세와 부모의 사회 이동을 동일시하는 연계성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자녀의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 본래의 목적에 두고 있는 것인지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비 지출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정의 경제력 즉 월수입의 총액을 파악하고 그리고 월 총수입 중 교육비 지출이 어느 수준이 되며, 그리고 그러한 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밝히고 개선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가계비 지출 중 교육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한달 가계 총 수입은 어느 정도이며, 그에 따라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셋째,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모의 느낌은 어떠한가? 넷째, 교육비 지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째, 교육비 지출이 가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도구 제작 및 통계 처리

앞에 제시한 연구 내용을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제작한 설문지를 학부모들에게 배포하고 그 반응의 결과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수합된 설문을 빈도별 100분율로 환산하고 chi-square 검증을 하였다.

###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주로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학부모로 하고 총 229명을 무선표집하였다. 표집된 사례를 49세 이하와 5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연령별 반응을 분석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연령별 남녀참여자 인원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229명이었으며 이들 중 49세 이하인 자가 120명, 50세 이상인

자가 107명 그리고 무응답자가 2명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229명 중 남녀분포 비율을 보면 49세 이하인 자 중 남자 28.4%, 여자 23.1%이었다. 또 50세 이상자 중에는 남자가 38.9%, 여자가 7.9%였다. 총 참여자 229명 중 무응답자 2명을 제외하면 약 99.2%가 반응에 응답하였다.

<표 1> 연령별 남녀참여인원 (단위: %)

성별 \ 연령	무응답	남자	여자	계(명)
무응답		0.9		2
49세 미만	0.9	28.4	23.1	120
50세 이상		38.9	7.9	107
계(명)	2	156	71	229

## 2. 연령별 직업분포

연령 집단별 직업분포는 주로 사무직, 판매직, 생산직이 주류를 이루는 직종이었으며 그 다음은 전문직이었다.

49세 이하의 연령집단 중 사무직이 14.8%로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판매직이 12.2%였다. 50세 이상의 연령집단 중에는 판매직이 13.5%로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무직이 12.2%이었다.

<표 2> 직업분포 (단위: %)

연령 \ 직업	무응답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농어민	미취업	계(명)
무응답	0.4						0.4			2
49세미만	2.2	5.7	0.9	14.8	12.2	1.3	3.1	0.9	11.4	120
50세이상		3.1	0.4	12.2	13.5	0.4	8.7	1.7	6.6	107
계(명)	6	20	3	62	59	4	28	6	41	229

## 3. 현직종에서의 근무연한

현 직종에서의 근무연한을 알아 본 결과 49세 이하의 연령집단 120명 중 12.7%가 현직종에서 16~20년 근속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높은 반응은 21~25년 근속이 10.5%이었다. 그리고 50세 이상의 연령집단 중에는 현직종 종사기간이 25년 이상인자가 12.2%로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높은 반응은 21~25년 근속자가 7.0%로 나타났다.

<표 3> 근무연한 (단위: %)

연령 \ 연한	무응답	5년이하	5~10	11~15	16~20	21~25	25년 이상	기타	계(명)
무응답			0.4	0.4					2
49세이하	1.3	8.7	7.4	7.4	12.7	10.5	2.6	1.7	120
50세이상	1.7	5.7	6.6	6.1	5.2	7.0	12.2	2.2	107
계(명)	7	33	33	32	41	40	34	9	229

#### 4. 월간 총 수입

월간 총 수입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본 결과 49세 이하의 연령집단에서 11.4%가 월간 190~220만원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액수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높은 액수는 130~160만원으로 응답하였다.

50세 이상 연령집단 중에는 월간 총 수입이 160~190만원 수입자가 8.7%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30~160만원 수입자가 7.9%이었다.

<표 4> 총 월수입(만원) (단위: %)

수입 \ 연령	무응답	40~70	70~100	100~130	130~160	160~190
무응답						0.4
49세이하	0.9	2.2	3.1	4.8	7.0	6.6
50세이상		2.2	7.4	4.8	7.9	8.7
계(명)	2	10	24	22	34	36

190~220	220~250	250~280	280~300	300이상	기타	계(명)
			0.4			2
11.4	4.4	2.2	4.4	4.8	0.9	120
4.8	3.5	1.7	2.6	1.7	1.3	107
37	18	9	17	15	5	229

#### 5. 가계지출비 항목

가계지출비를 항목별로 살펴볼 때 “교육비 지출” 항목이 두 연령집단 공히 가장 높게 반응하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모의 태도고찰

였다. 49세 이하의 연령집단은 전체항목 중 교육비 지출이 2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주생활비”로 19.7%가 응답하였다. 50세 이상의 연령집단 역시 교육비지출이 25.8%로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주생활비로 18.3%이었다.

<표 5> 가계지출비 (단위: %)

연령 \ 항목	무응답	자녀양육비	주생활비	부모부양비	각종부조금	세금	기타	계(명)
무응답		0.4	0.4					2
49세이하	0.9	26.6	19.7	0.4	0.4	2.2	2.2	120
50세이상		25.8	18.3		0.4	1.3	0.9	107
계(명)	2	121	88	1	2	8	7	229

6. 월 총 수입에 대한 자녀교육비 지출정도

월 총수입 중 자녀교육비로 지출되는 액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20~25%라고 응답하여 양 연령집단 공히 같은 반응이었다. 이들 반응을 연령집단별로 분리해서 살펴보면 49세미만의 연령집단은 전체 반응자의 11.4%, 50세 이상의 연령집단은 9.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액수의 항목은 양 집단 공히 25~30%였으며, 50세 이상의 연령집단에서는 월수입금 35%이상 지출한다는 반응자도 7.9%나 되었다.

<표 6> 자녀교육비 지출정도 (단위: %)

연령 \ 비율	무응답	5%	5~10%	10~15%	15~20%
무응답				0.4	
49세이하		1.3	2.2	7.9	7.4
50세이상	0.4	1.3	1.3	7.9	5.2
계(명)	1	6	8	37	29

  

비율	25~30%	30~35%	35%이상	기타	계(명)
20~25%					2
0.4					120
11.4	10.5	7.4	3.9	0.4	107
9.6	7.9	5.2	7.9		229
49	42	29	27	1	

### 7.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모의 느낌

고액의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는데 대한 부모의 느낌을 알아 본 결과 49세 이하의 연령집단 부모들은 “흐뭇하다”가 16.5%, “아쉽다”가 31.9%, 그리고 50세 이상 연령집단 부모들은 “흐뭇하다”는 반응과 “아쉽다”의 반응이 공히 21.8%로 나타났다. 49세 이하의 연령집단 부모들이 50세 이상의 연령집단 부모에 비해 자녀의 과다 교육비 지출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다는 반응이었다.

<표 7>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모의 느낌 (단위: %)

연령 \ 느낌	무응답	매우흐뭇	흐뭇	약간아쉽다	매우아쉽다	기타	계(명)
무응답		0.4	0.4				2
49세이하		1.7	14.8	28.4	3.5	3.9	120
50세이상	0.4	1.3	20.5	20.1	1.7	2.6	107
계(명)	1	8	82	111	12	15	229

### 8. 교육비 지출의 중요 이유

자녀들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중요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 본 결과 두 연령집단 모두가 그 중요 이유를 현대사회가 “높은 교육수준을 원하기 때문” 이라고 하였으며, 49세 이하의 연령집단이 19.7%, 그리고 50세 이상의 연령집단이 17.9%로서 높은 비율의 응답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이유는 “자녀들의 인격형성”에 두고 있었는데, 49세 이하의 연령집단이 17.9%, 50세 이상의 연령집단이 14.0%로 응답하였다.

<표 8> 교육비 지출의 중요 이유 (단위: %)

연령 \ 이유	무응답	우대받기 때 문	사 회 가 원하기때문	경쟁때문	자녀성공이 부모 성공	자 녀 의 인격형성	기타	계(명)
무응답			0.9					2
49세이하	0.4	9.2	19.7	1.7	2.2	17.9	1.3	120
50세이상	0.9	10.0	17.9		3.5	14.0	0.4	107
계(명)	3	44	88	4	13	73	4	229

### 9. 자녀 교육비 지출이 가계부담에 미치는 영향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모의 태도고찰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가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결과 양 연령집단 공히 “가계부담이 된다”는 응답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49세 이하의 연령집단이 47.6%, 그리고 50세 이상의 연령집단이 44.1%로서 가계부담이 된다는 응답을 하였다. 한편 자녀교육비 지출이 가계부담에 지장 없다는 반응은 49세 이하의 연령집단이 4.4%, 50세 이상의 연령집단이 2.2%에 불과하였다.

<표 9> 자녀교육비 지출의 가계부담 (단위: %)

연령 \ 부담	무응답	매우부담됨	약간부담됨	부담안됨	계(명)
무응답			0.9		2
49세이하	0.4	13.1	34.5	4.4	120
50세이상	0.4	14.0	30.1	2.2	107
계(명)	2	62	150	15	229

10. 교육비를 제외한 자녀를 위한 필요경비

자녀의 교육비 지출 외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돈이 필요하다면 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2개 연령집단 공히 “결혼준비금” 저축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 이것은 49세 이하의 연령집단은 전체의 28.8%, 50세 이상의 연령집단은 전체의 34.1%로 나타났다. 그 밖에 높은 응답은 두 집단 공히 “주택마련금”으로 응답하였다.

<표 10> 교육비를 제외한 자녀를 위한 필요경비 (단위: %)

연령 \ 경비	무응답	결혼준비금	주택마련	취업준비금	유락비	기타	계(명)
무응답		0.9					2
49세이하	0.4	28.8	4.4	3.5	7.9	7.4	120
50세이상	1.3	34.1	7.0	2.2	1.7	0.4	107
계(명)	4	146	26	13	22	18	229

11. 월간 노부모 부양비 지출

노부모 부양비가 한달 평균 대략 어느 정도 지출되는지를 알아 본 결과 15만원 이상이라는 반응이 양 연령집단 공히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 49세 이하의 연령집단은 전체 응답자의

21.0%였으며, 50세 이상의 연령집단은 전체 응답자의 15.7%로 나타났다.

<표 11> 한달간 노부모 부양비

(단위: %)

연령 \ 금액	무응답	3~6만원	6~9만원	9~12만원	12~15만원	15만원 이 상	기타	계(명)
무응답						0.9		2
49세이하	1.3	4.4	5.7	10.0	7.0	21.0	3.1	120
50세이상	1.3	1.7	2.2	10.5	10.9	15.7	4.4	107
계(명)	6	14	18	47	41	86	17	229

#### IV.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를 위해 참여한 연구 대상 인원은 229명이며 이들을 49세 이하와 50세 이상으로 이원화하여 그 반응을 규명하였다. 연령별 생계의 원천은 주로 공직자 내지는 판매직이었으며, 현직종에서 근속기간은 광범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16년에서 25년 사이가 가장 많았다. 월간 총 수입은 7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300만원 이상도 약간 있었으나 대체로 월 총 수입이 상위수준에 들지는 못했다. 이러한 수입 중 가계 지출비가 가장 많이 차지한 항목은 교육비 지출이었다. 그리고 주생활비와 기타 모든 지출비를 모두 합해도 교육비에 미치지 못했다. 월간 총 수입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액수는 주로 20~30% 사이였으며 30~35% 이상도 상당수 차지했다. 이러한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한데 대한 부모의 심리적 상태가 대부분 흐뭇하지 못하고 아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쉬워하는 감정은 재정적으로 가계운영에 미치는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 지출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사회가 고급인력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표 9에서 반응자의 약 70%), 다음의 반응은 자녀의 인격형성 항목이었다. 기타 자녀교육비 이외에도 자녀를 위해 저축하는 돈은 결혼비용을 들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헌신적 사랑이 지나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는 교육비 지출이 가계운영에 지나칠 정도의 부담을 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리고 교육비 지출이 부모의 심리적 상태가 흐뭇하고 만족한 상태에서 지출되어야 하므로 차후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국가와 사회의 조정적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며 가정에서는 부모들 역시 자녀 교육비 지출에 대한 통제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V. 참고문헌

- 1) 공은배, 백성준, 한국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RR 94-17. 1994.
- 2) 최청일, 교육과 경제발전에 관한 논의,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25집. 1997.
- 3)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1997.
- 4) 교육개혁과제추진상황, 교육부, 1996.
- 5) 부경대학교 자체평가연구보고서, 부경대학교, 1997.
- 6) 신입생을 위한 진로가이드, 부경대학교, 1998.
- 7) 평생학습법의 기본 방향과 시안, 교육개혁위원회, 1997.
- 8) Keundae Lee, Intergenerational Transfers Focussing on Educational Expenditure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y (1998), A dissertation submitted by the Faculty of Graduated school of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of Buffalo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 A Study on Parent's Attitude in Educational Expenditure

Geun-Dae LEE · Ta-Soon CHA\*

SUNY at Bufalo · \*Pukyu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specific property of educational expenditure, which is a monthly total income, level of educational expenditure, effect of means of living, and psychological burden of parents of students.

The subjects for this research were parents of students that is two hundred twenty nine and most of them were official administrators or sellers.

The monthly total incomes of them didn't get to the highest rank, and the educational expenditure was the highest for their expenditure of means of living and universally 20~30%. Therefore, the majority of parents of students who carry a charge thinks educational expenditure to be not sufficient. They thought that it was due to demand of a high class human strength in society to the most important reason of educational expenditure.